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6. 19.(수) 15:30 < 6.20.(목) 조간 > 배포 2024. 6. 19.(수)

장관, 중국 장쑤성 당 서기 회담

- 장쑤성, 한국 최대 교역·투자 파트너('23년 723억 불, 중(中) 내 GRDP 2위)
- 우리진출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 및 한중 공급망 협력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.19.(수)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(江蘇)성 신창싱(信長星) 당 서기를 만나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·투자 활성화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, 한중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GRDP 2위 지역이자 우리 최대 교역·투자 지역으로,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불에 달한다. 특히 자동차, 배터리,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(쑤저우 삼성전자, 우시 SK하이닉스, 옌청 기아,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)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-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.

* '23년 장쑤성 지역총생산(GRDP) : 12조 8,222억 위안(1.77조불)
* '23년 한중 교역 23.1%(723억불), 누적 對中투자 27.5%(257억불), 투자기업 수 2,926개 사

안 장관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 장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,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, 장쑤성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. 신 서기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역·투자 확대와 함께 금번 교류회와 같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한편, 익일(6.20.(목))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는 '제6회 한-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'를 개최하여 한중 간 투자 활성화 및 선진 제조업, 신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주원석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아림 (044-203-569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